

## 정낭(錠木)-올레(Olleh):제주 공유경제특구

이 문 호\*

### < 목 차 >

- |                        |                   |
|------------------------|-------------------|
| I. 서론                  | V. 플랫폼 생태계        |
| II. 墓의 神門, 올레          | VI.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 |
| III. 이승이 정낭과 저승이 묘의 신문 | VII. 결론           |
| IV. 제주의 공유경제 특구        | 〈참고문헌〉            |

### < 국문 초록 >

제주지역에 산재된 錠木올레와 드러누워 있는 세계 최대 피라미드인 墓의 神門올레를 조사하고 제주인의 풍속 Protocol을 4차산업혁명인공유경제와 연계시켰다.. 3개의 이승 정낭과 2개의 墓의 저승 神門은 올레길 공간체로 연결되어 있다. 제주의 돌담은 돌끼리 수놓여진 권담이되고, 권담은 제주인의 관습상 권당(Family Networks)로 연결된다. IoT(internet of Things)는 사람과 모든 물질을 연결하면서 서로 공유한다. 4차산업의 핵심 공유경제동향과 플랫폼을 소개해하고 공유경제 제주특구를 제안한다.

**핵심어 : 정낭, 올레, 플랫폼, 공유,경제특구**

\* 전북대 전자공학부 초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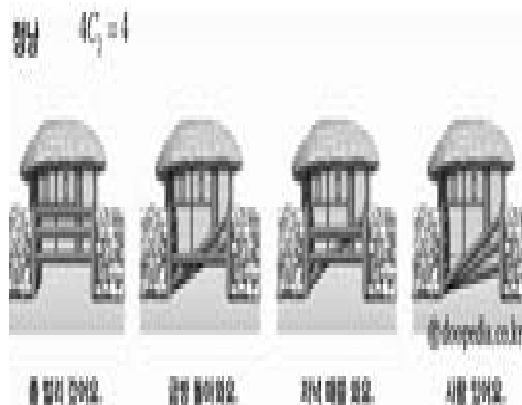
## I. 서론

‘정주목’과 ‘정낭’은 제주 선인들이 빚어낸 도둑, 거지, 대문이 없는 삼무의 미풍양속에서 나온 집 대문이다. 원래 제주 민가들은 대부분이 초가집들이었는데 이 가옥의 올레에는 대문의 역할을 했던 정주목과 정낭이 있다. ‘정주목’에는 3~4개의 구멍이 뚫어진 정낭이 있는데 정낭은 소와 말의 출입 방지와 주인의 외출 등을 표시하는 기능을 지닌다[1,2,3,12].

‘정주목’은 주로 다공질 현무암으로 만들어 졌으나 지역에 따라 나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돌로 된 것을 ‘정주석’, 나무로 된 것을 ‘정주목’이다. 컴퓨터는 서양에서 발명되고 개발되었지만, 컴퓨터의 원리는 제주 풍속인 정낭(錠木:Gat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금부터 약 780년 전부터 제주 지역에서 사용되어 온 정낭(錠木:大門 Gate)통신 시스템이 이문호 교수에 의해 大田 EXPO'93 한국 통신 정보통신관에 전시를 계기로, 이 시스템이 디지털 무선 통신의 효시로 인정받게 됐다.

정낭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정지 무선통신으로 「Yes」와 「No」가 분명한 비트공유정보(BitSharing Information) 시스템이다. 뿐 만 아니라 애매 모호한 정보를 디지털로 분명히 표시한다. 정낭이란 세 개의 서까래 크기의 나무 기둥을 정주목(錠柱目:서너 개의 구멍이 뚫린 커다란 돌)또는 정주석에 얹어 놓은 것인데, 이는 집안의 출입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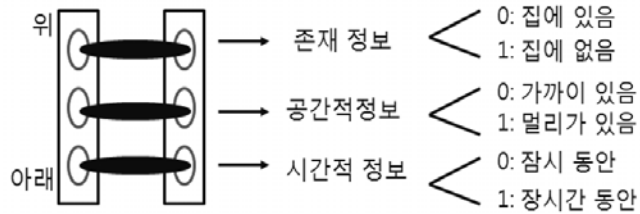


[그림 1] 정낭



[그림 2] 정낭 교통 표시기와 버스정류소 지붕의 정낭

8괘 패턴	정낭 패턴	정낭 메시지	정낭 디지털 코드	정낭 스위칭 NOR 게이트
		집에 있음	000	
		잠시동안 이웃집 방문	010	
		이웃 마을 방문	101	
		장시간 외부 출타중	111	



[그림 3] 정낭 디지털 코드

정낭은 제주 특유의 생활 풍습으로 집에 대문이 없기 때문에 마당에 널려 있는 날래(날米 : 제주 방언)인 보리나 조 등 곡식을 소나 말이 들어와서 먹지 않도록 나무를 걸친 것을 사용하다 보니 나중에는 집안에 사람의 존재 유(有)무(無)를 외부에 알리는 정보 표현 수단 및 야간 조명등까지 겸하게 됐다.

정낭 정보는 8가지(2<sup>3</sup>) 상이한 정보를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데 정낭 3개중에 하나만 共有되게걸쳐 있으면 '010(坎,감:물)으로 집안에 사람이 없으나 이웃에 잠시 마실(外出)을 가서 곧 돌아온다는 것이며 두개의 정낭이공유되게 걸쳐 있으면 '101'(離,이:불)로 이웃마을에 가 있어 마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이고, 세 개의 정낭이 모두공유하게 걸쳐 있으면 '111'(乾,건:하늘)로 집에서 먼 곳에 출타중(出他中)이란 내용이며 정낭세개가 서로 공히 걸쳐 있지 않으면 '000'(坤,곤:땅)으로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정보 표시다. 000는 6이되는 이유는 2에((1-X1)+(1-X2)+(1-X3) )乘=6 이되는데, X1,X2,,X3이 모두 (0,0,0)이 될 때이고 만일 乾(111:3)은 X1,X2,X3이 (1,1,1)될 때이다.

제주인의 거친 환경에서 진솔하게 살아가면서 얻은 삶의 지혜가 디지털 통신은 물론, 요즘4-6차산업혁명의 공유경제의 근간이되는 공유정보의 효시가 정낭인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숨바섬 등에도 대나무 정낭이 발견 되고 있다. 제주에서 흘러갔는지 아니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더 연구할 문제이다. 표1, 2는 제주도 내 정낭 도내 분포 현황이다.

또한, 정낭시스템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닐스보어(Niels Bohr1885-1962)가제안한 상보성원리(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다. 즉 乾(111하늘)과坤(000 땅), 坎(010물)과 離(101불) 서로가 반대되는 것이공유하면서 공존한다. 對와 待로 1과 0 이다. 태극의 건곤감리다. 반대되는 것은 서로 보완적이다(Contraria Sunt Complementa 라틴어). 서로 대립하면서도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품는 관계를 뜻한다.

비근한 예로 양성자나 전자도 입자와 전혀다른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12].

정주석에 기동인 돌담 역사를 보면 애당초 제주에는 옛날에 토지 소유를 경계하는 돌담 표지(標識)가 없어 강폭한 자는 자기 이웃 밭을 침식하기도 하고 혹 토호(土壕)들은 관(官)과 결탁하여 약한 백성의 토지를 강점하는 일이 있었다. 고려 고종(高宗) 연간부터 탐라에는 부사(副使)와 판관(判官)을 보내 왔는데 고종 21년(1234년)에 김구(金丘)

가 판관으로 부임하여 토지 소유의 경계로 돌을 모아 담장을 쌓도록 하였다. 그 때부터 토지 경계 분쟁은 없어지고 아울러 방목하는 소와 말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없어졌으며 바람 많은 곳에 방풍(防風)의 구실도 하였다. 또 주위에 많은 돌들이 돌담으로 이용되었으므로 경작하는 데도 편하여 민생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발담은 2014년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되었고 제주도에서는 발담과연계한 6차산업화 사업 불통해 제주농업과 농촌및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발담쌓는 것을 수학적으로 풀기도했다,[13]

**<표 1> 정낭 보존상태**

	위치	보존	활용상태
1	성산 성읍 민속촌	100여개 정낭, 정주목 300~400년 추정	역사적, 관광적 사용, 보존 필요
2	돌문화공원	70~80개 정주석, 원형 보존	관광 역사적 보존 필요
3	도내 민속 박물관 및 제주대, 제주 도청 등	150여개	관광 보존 필요
4	도내 과수원 입구 및 도내 묘지 입구	500여개 정낭, 정주석은 돌담으로 세움	실용화
5	제주도내 일주도로 정류소	최근 정낭을 지붕 석가래, 의자,기둥 표시, 100여개	실용화
6	제주도내 로터리 신호등 표지기 보조	최근 일주도로 로터리 교통신호등 표지기 150여개	실용화
7	제주시 용담 신호등	야간 경관 조명	실용화
8	한경 상명 정낭 마을	정낭시범도시 150여개	실용화
9	안덕면 산방산 일대	정낭 도로 입구 설치	실용화

**<표 2> 정낭 사용 특징**

1	제주 중산간 산록도로 정낭교통등	안개지역 정낭 교통신호등 설치	특징 : 교통사고 감소
2	제주도 전역 공원 정낭 운동기구 - 다리근육강화	수직 Bar에 정낭 3개를 설치, 종아리 근육 운동 기구	체력증진
3	사무실 책상 위 정낭 연필꽂이	세 개 정낭이 표시되면 장기 외출, 하나 걸치면 잠시 후 돌아오고 두 개 걸쳐 있으면 한, 두 시간 후 돌아옴 알림	편의성 제공
4	정낭 악세사리 마스코트	가방에 인형과 같이 장식물로 정낭 판매	위치센서
5	정낭 DNA 및 괘(卦) 센서	정낭 DNA 센서는 손으로 touch 하면 몸상태 산성, 알카리 표시	Healing
6	정낭 브레인 64 괘 Magic Square	늘 손에 휴대하며 지각과 두뇌 활발 운동기	Healing

한편, 정낭 code 응용은 주역과 유전자 코드의 유사성(similarity)으로 음과 양, 四象, 八卦 그리고 64卦(Codon)로 설명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는 墓의 神門,올레, 3장에서는 이승이 정낭과 저승이 묘의 신문 연결체 올레 4장에서는 제주공유경제특구 5장에서는 세계 공유 경제규모 6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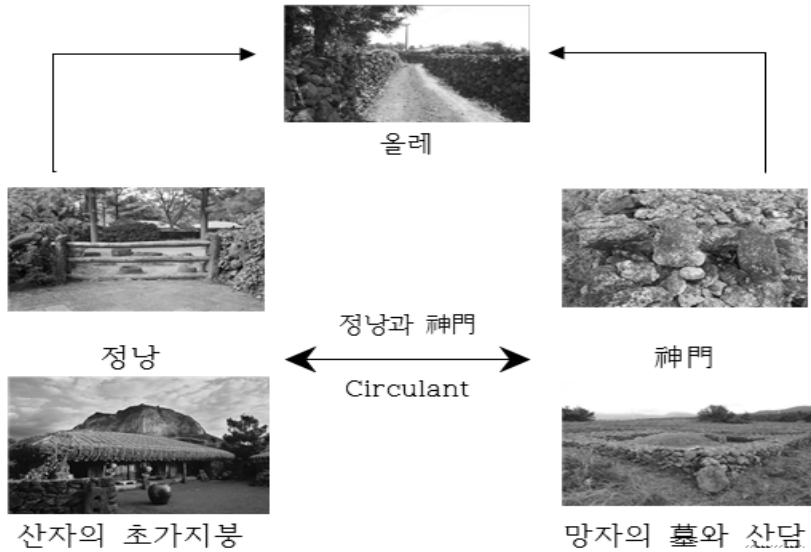
**II. 墓의 神門, 올레**

이씨 조선 초기 1406년 경 문방귀, 고득중, 기건 목사 등에 의해 墓가 만들어 졌으며 산담은 초기에 무덤을 소나 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돌담을 만들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념비성을 띄게 되었다. 산담이 클수록 집안의 위세(威勢)와 명당을 나타내고, 작은 외담의 산담일수록 그 집안의 사회·경제적 지표로 작용 했다. ‘산담이 곧 묘역’인 축조물이라는 점에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무덤의 장식의 일부분이 되기도 했다. 특히 제주

도 풍속에는 사람이 죽어 시체를 매장하는 법이 본래 없었다. 시체를 그냥 냅가 골짜기 같은 곳에 내다 버리는 것이었다. 제주 목사로 온 기건(奇虔, 1442)이 시체를 관에 넣어 땅에다 매장하는 법을 도민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꿈에 삼백 여 명이나 되는 귀신이 나타나서는 기건에게 고마워 절하면서 말하기를 “참으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들은 들판에서 햇빛과 비바람에 바래질 처지를 면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힘을 모아 공으로 하여금 현명한 자손이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깨고 보니 꿈이었다. 초기 묘에 얽힌 일화다.[12].

신문(神門)은 무덤 망자의 올레이다. 영혼의 출입구인 셈이다. 신문 올레의 기능은 혼백(魂魄)의 출입구, 1~3개의 길쭉한 정돌을 올려놓아 사람이나 마소의 출입을 금한다. 올레에는 잔돌을 깔거나 납작한 돌을 놓아 정갈하게 하여 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올레를 만들지 않을 경우 그 위치에 돌계단을 놓는다. 가령 올레의 위치가 되는 쪽이 앞면이면 앞 쪽에, 측면일 경우 측면 쪽에 놓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대략 20세기 이후에 조성된 산담에는 올레를 만들지 않고 그냥 막아버린 경우가 많다. 그리고 드물지만 신문에 평평한 사각형의 덧돌을 놓은 사례가 있다. 밖에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신문의 끝편에 사각형의 덧돌을 놓아 신발을 벗고 무덤 안에 들어가라는 표시다. 무덤 사방에 깃돌을 사위돌이라 하며 사위가 놓은 돌이 깃돌이다. 봉분은 용(龍)형태를 띠도록 하고, 뒤편을 용의 꼬리처럼 길게 했다. 이를 ‘용미(龍尾)’라고 하는데, 비가 올 경우 빗물을 좌우로 나누어 흙이 쓸려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용미는 망자의 얼굴 바로 윗부분에 있다. 봉분 앞에는 ‘계절(階節)’이 있다. ‘지절’, ‘제절’ 이라고도 하며, 봉분이 앞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면서 계단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장례문화가 화장 등으로 바뀌면서 역사가 고전적인 산담과 신문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잔존하는 제주 무덤을 91년 현재 약 30만 개가 있다.

### Ⅲ. 이승이 정낭과 저승이 묘의 신문



[그림 4] 정낭 - 올레 - 신문

제주인들은 산사람은 초가지붕 정낭 안에 살고, 죽은 사람은 墓의 신문 안에 살지만 동일 공간체에 사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 두 세상의 연결 공유길인, 올레였다. 오늘도 수 많은 관광객들은누구나같이공간을 공유해서 공간을 같으며 제주 올레길을 걷고 있다. 제주 올레길은 성산포 일출봉 시흥리가 1코스이고, 21코스인 구좌면 종달리가 마지막 코스이다. 올레(Olle)길은 2007년 서명숙씨가 개설했는데, 그녀의저서 ‘놀명 쉬명 걸으멍 제주걷기 여행’을 보면, ‘23년간에 걸친 기자생활을 그만두고 길위에서서 ,산티아고 길위에서 고향제주의 올레길을 착안했다고한다. 올레 영어 표기가 Olle 보다는 Olleh로했으면 하는 아쉬움도있다. 이유는 제주가 둥근타원으로 거꾸로 돌아 걸어도처음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Hello는 Olle 이 逆(Reverse)이다. 제주의지형특성을 감안하면 올레는영어표기를 Hello 로 고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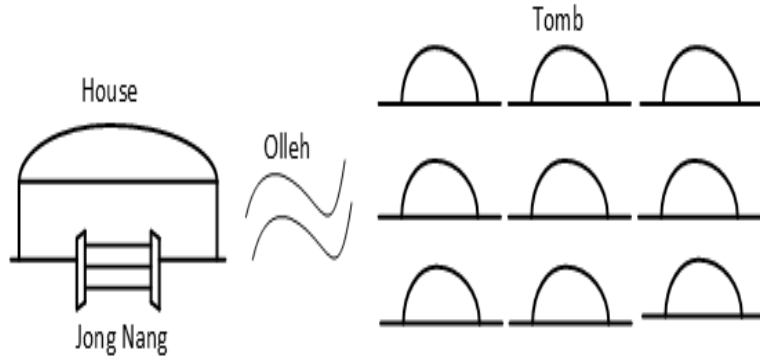


<표 3> 올레코스

Course	시작 → 중간 → 종점
1	시흥 제주올레 안내소 → 목화휴게소 앞 → 광치기 해변
1-1	천진항·하우목동항 → 하고수동 해수욕장 → 천진항·하우목동항
2	광치기해변 → 성산홍마트 앞 → 온평포구
3	온평포구 → 김영갑갤러리 입구(A) / 신산리 마을카페(B) → 표선 제주올레안내소
4	표선 제주올레안내소 → 토산 남쪽나라 횃집 앞 → 남원 제주올레 안내소
5	남원 제주올레 안내소 → 위미 동백나무 군락지 → 쇠소깍 다리
6	쇠소깍 다리 → 소정방폭포 제주올레 안내소 →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7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 켄싱턴 리조트 바닷가 우체국 → 워평 아왜낭목 쉼터
8	워평아왜낭목 쉼터 → 주상절리 관광안내소 → 대평포구
9	대평포구 → 화순 황개천 올레화장실 → 화순 제주올레 안내소
10	화순 제주올레 안내소 → 셋알오름 화장실 앞 → 하모 제주올레 안내소
10-1	상동포구 → 하동포구(가파포구)~종점
11	하모 제주올레 안내소 → 모슬봉 정상 →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무릉생태학교)
12	제주자연생태문화체험골(무릉생태학교) → 신도리 산경도에 용수포구 절부암 앞
13	용수포구 절부암 앞 → 낙천리 아홉굿마을 의자공원 → 저지예술 정보화마을(웃뜨르 美센터) 앞
14	저지예술 정보화마을(웃뜨르 美센터) 앞 → 월령 선인장 자생지 입구 → 한림항(비양도행 도선 대합실)
14-1	저지예술 정보화마을(웃뜨르 美센터) 앞 →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 → 인향동 풀내음식당 앞
15	한림항(비양도행 도선 대합실) → 납읍초등학교 → 고내포구 우주물 앞
16	고내포구 우주물 앞 → 향파두리 코스모스 정자 앞 → 광려1리 사무소 앞
17	광려1리 사무소 앞 → 어영소공원(용담해안도로 널모리동동 건너편) → 간세라운지
18	간세라운지 → 삼양검은모래해변 정자 옆 → 조천만세동산 주차장 내
18-1	상추자항(시/종점) → 목리슈퍼 아 → 신앙항 CU편의점(시/종점)
19	조천만세동산 주차장 내 → 동복리 마을운동장 → 김녕서포구 주차장
20	김녕서포구 주차장 → 행원포구 광해군 기착비 앞 → 제주해녀박물관 정자 앞
21	제주해녀박물관 정자 앞 → 석다원 맞은편 → 종달바당

<표 4> 정낭 - 묘(墓)의 神門

문(門)	사용연대	門의 구분	특징	현대과학적 응용
정낭 (錠木)	1234년 경	이승사람의 門 올레	天地人의 3 Bit(000, 100, 101, 111)	교통신호등, 로봇, 드론, 주역, 태극괘 DNA, 통신
묘(墓)의 神門	1406년 경 문방귀	저승 망자의 門 신문(올레)	陰陽의 1Bit (0, 1)	컴퓨터 및 전기 스위치 On Off, Digital 전자공학.



[그림 5] 정낭집 - 올레 - 무덤(墓)

올레길을 걷고 있는 요우커와 관광객들을 위한 “드러누워 있는 세계 최대 피라미드 生死 박물관”을 예로 들 수 있다. 生死 박물관 안을 들어가 죽음 체험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을 반성하며 제주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름에 올라 제주의 상쾌한 바람을 즐길 수 있어 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오름에 오를 때 보면 ‘벵디’ 초원지대가 있다. 오름, 꽃자왈과 함께 제주어로만 존재하는 ‘벵디’는 현재 지질학적으로 규정되거나 정립된 지형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 리아걸어도 생소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존재하고 있는 벵디는 제주의 소중한 자연자원으로, 오름과 꽃자왈이 화산이 만든 산과 숲이라면 벵디는 화산이 만든 초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면적의 1.8%에 불과하지만, 초지 비중은 국내 초지면적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에는 벵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2]

벵디에 대한 다방면의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벵디는 지질적 특성상 동굴과 습굴, 습지의 주요 분포지로서 지질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인 탐라목장이 수산평 벵디에서 시작됐듯이 700여년 목축문화 역사박물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벵디는 초지가 주로 분포하는 특성으로 인해 보전등급은 매우 낮고 이로 인해 개발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다음 표 4은 정낭과 묘의 특성관계이다.

#### IV. 제주의 공유경제 특구

제주인의 3대 발명은 1234년경에 나온 김구판관의 돌담과 밭담, 정낭, 그리고 1406년 경 문방귀의 墓의 神門등을 들 수 있는데, 요즘 불고 있는 4차-6차 산업혁명이 모태가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共有經濟(Sharing Economy)가 원리이다. 답은 ‘수눔음’(勞動共有 Labor Sharing)에 있다.[5-10])

제주에서 돌담은 밭이나 집 울타리 경계를 표시하면서 소나 말의 침범을 막고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한다. 제주에서 “돌(石)”의 삼촌(Uncle)은 ‘바람’이다. 바람이 돌을 쌓았다. 제주 바람은 연 평균 초속 4.8m/s로 늘 분다. 돌담은 불규칙(Random)하게 얼키설키 쌓아지고 돌 사이의 틈새 돌트멍(Window)로 인해 바람이 불고 지나지만 돌담은 끄떡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돌 각자가 제자리를 지키면서 돌이 이웃과 의지(依支)하면서 서로 버티는 상생(相生, Reciprocal Cooperation)과 돌담이 연결체의 대칭(Symmetry)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돌과 돌이 ‘수눔음’Networks인데, 제주 특유의 사회관습 권당(Social Custom Family Networks)도 돌의 수눔음에서 왔다. 수눔음(手績)은 ‘손들을 놀다’의 뜻이고 놀다는 ‘쌓다’로 손들을 쌓아 서로 도와 가면서 농사일을 하는 ‘노동의 공유’이다. ‘놀’은 보리놀, 출 놀 등으로 쓰이며 보리나 소꼴을 원기둥으로 쌓아 바람과 비를 피했다. 놀은 ‘나람쥐’로 덮고 놀 꼭지는 ‘주쟁이’로 덮었다..

한편, ‘권돌’은 고인돌에서 비롯됐는데, 순 우리말인 고인돌은 고대 부족 국가 지배계층의 무덤 또는 제단을 의미하며, 이 단어의 유래는 큰 돌을 받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권돌(支石)’또는 ‘고인’돌에서 왔는데, 돌을 쌓으면 ‘돌담’이 되고, 밑받침 되는 돌은 ‘권돌’이 된다. 그리고 그 위에 다음 돌을 다시 얹으면 ‘권담(礎牆)’이 되고, 돌과 돌의 ‘수눔음’(Neighbor Cooperation Culture)이다. ‘권담(礎牆)’은 제주인의 관습상 받음 변화(口語體)가 되면 권당이 되며, 권당은 제주인의 돌담문화에서 꽃 핀 제주 특유의 수눔음 즉 ‘노동 공유문화(文化)의 연결 Networks’이다. 제주 돌레 삼백여리 환해장성도 방어공유이고, 제주 한달 살기도 부동산 공유경제다. 물론, 제주밭담은 이웃밭끼리 한번 담을 쌓아놓으면 오랜 세월 동안 공유되므로 한계비용제로인 4차 산업혁명이 좋은 예 이다. 최근에는 카카오 카풀제주여행이나診療車 공유에 의한 가정방문 의사 진료도 생각해 볼

일이다.

한편, 제주 사람들이 귀당에 그렇게 집착하는 까닭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부로부터의 온갖 위협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선 이웃간 촌락내혼(村落內婚)으로 연대(連帶)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귀당의 탄생배경은 제주의 자연 환경과 국가 사회적 현상 때문으로 제주는 삼재도(三災島)로 수재(水災), 풍재(風災), 한재(旱災)로 흉년이 지속되었다. 특히 조선 영조(1739년) 정조 때가 심했다. 김만덕은 굶어 죽는 백성을 위해 구휼을 했다. 흉년을 이기지 못해 물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제주도민 출륙 금지령이 200년간(1629-1823) 내려졌고 몽고 원나라 제주지배 100년(1273-1373)과 1948년 4·3 사건 등이 있다. 따라서 항상 바람부는 제주에서 돌담끼리 의지하듯 사람들도 서로 의지하고 돕는 귀당 문화 탄생 배경이 됐다. 귀당이 초상을 당했을 때는 슬픔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고적’(쌀을 얼마씩 친족에게 할당, 장부(Codebook)작성)을 한다. 오늘날 블록체인코드의 원형이다. 오는 6차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쌀에 대응하는 것으로 Local 특성이 있는 Coffrange(Coffee+Orange)를 블록체인의 대응재화로 제시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형이 아닌 모든 참여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분산형시스템이 장점이다. 한편, 2018.10월 26일 제주도국정감사시에 김병관 민주당 국회의원은 제주의 ‘공유경제특구’를 제안했다. 제주도역사와 풍속, 환경등을 앞서 살펴본바와같이, 제주는 수놓음의 본향이다. 수놓음은 노동의 공유로 4-6차산업의 기본모델이다. 밭담과 정낭 안에서 살아온 제주사회는 공유경제모델이 특구인 셈이다. 블록체인-암호화폐는 공유경제가 부분적인 운용수단인 Tool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주장하는 제주도는 도민들이 풍속과 Protocol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제주환경을 보호하는데 우선을 뒤야 한다. 그예로 물이 부족한 제주를 고려할 때, 한달 물이 사용량을 체크해 적게 사용하 수용자에게 보상을하는 방법도 있다.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여럿이 공유해 쓰는 소비의경제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중고물품을 교환하거나 집이나 자동차, 값비싼공구등을 빌려준다. 물건뿐만 아니라 재능이나 노동력을 교환하기도한다, 기존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거래카페등이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했다면, 공유경제는 서비스 제공자이자 이용자가 되는 개인들을 연결하는게 차이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주변에 쓰이지않은 유휴자원이 많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지속가능하다고 본다. 세계적인 도시 12곳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자동차는 평균 95%가 주차한 상태였고60%의 집이1-2인 가정인데도 방이 3개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도시문제를해결할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다, 경기연구원은 카셰어링의 사회경제적효과라는보고서에서카셰어링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중 51%가 갖고있던 차를 팔거나 차를사려던 계획을 미뤄, 카셰어링한대당 대체효과가16.8 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노르웨이오스로대 연구팀도“카셰어링” 이 가장친환경적인 출퇴근방법이라고 연구보고서를 냈다. 세계공유경제규모는 2013년기준 150억달러(약172조7)이며 매년 80%이상폭팔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V. 플랫폼 생태계

### 1. 플랫폼의 정의

컴퓨터의 윈도즈와 같은 운영 체제를 플랫폼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통신사를 플랫폼이라 하기도 하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플랫폼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플랫폼이 점차 진화하면서 여러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래 플랫폼은 ‘plat(구획된 땅)’과 ‘form(형태)’의 합성어로 ‘구획된 땅의 형태’를 의미한다. 즉, 경계가 없던 땅이 구획되면서 계획에 따라 집이 지어지고, 건물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듯이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의미하던 플랫폼이 최근 하나의 장(場 Place)이라는 광의의 의미로 확대된 것은 스마트 혁명의 역할이 크다. 스마트 혁명의 주역들인 애플, 구글, 아마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이 세상을 뒤흔들며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이들 모두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며, 자사만의 독특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을 플랫폼 공급자로서 그들이 가진 OS를 중심으

로 소프트웨어의 다른 컴포넌트들과 하드웨어 컴포넌트 등을 경쟁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OS 플랫폼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플랫폼 공급자와 이용자를 연결, 매개하는, 광의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사용자가 이야기하면 Wikipedia 백과사전이 플랫폼이 대표적인 경우다. 사용자가 정보를 올리면 다른사람이 잘,잘 못을 공유해서 수정하는 것이다.

저자의 경우,세계최초 Jacket행렬을 발견해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올렸는데 누가 언제 어디에 발표했는가에대한 전문가들이 질문들이 끊임이 없었다. 즉 서로가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토론하고 그 결과가 기록이되면서 최종 Upload 된다.

애플의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PC 플랫폼, 윈도우 플랫폼 등 이미 많은 플랫폼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도 플랫폼이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애플의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다수의 소비자를 매료시켜 소비 생태계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애플의 성공 이후 플랫폼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전략이란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들을 설계하고 만들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에서 공통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상호 공유와 활용을 통한 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스마트 시대에는 플랫폼을 ‘정거장’에 비유할 수 있다. 정거장은 특정한 장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도착해야 하며 도착한 사람을 태우기 위해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운송 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인 이용자가 되는데 플랫폼은 바로 사람과 운송 수단이 만나는 접점, 혹은 사람과 운송 수단을 매개하는 매개 지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 시대에 인터넷 사업자, 콘텐츠 제공자, 사용자, 기기 제조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는 매개 지점이 플랫폼이다.

따라서 핵심 역량과 가치가 플랫폼에서 나오고 그 플랫폼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의 등장은 기업에는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은 플랫폼 구축에 성공해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음반업계와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은 각각 아마존, 애플, 구글의 플랫폼 내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플랫폼 전략론의 권위자인 안드레이 학주(Andrei Hagiu)와 히라노 아쓰시 칼(平野,

敦土カール)이 쓴 『플랫폼 전략(プラットフォーム戦略)』은 모든 기업의 미래전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 플랫폼 전략은 무엇이며,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왜 일제히 플랫폼을 구축하려 하고, 기업은 물론 개인과 정부까지도 왜 이 전략을 주목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플랫폼의 힘포와 함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플랫폼 전략은 혁신 기업들이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는,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최첨단 경영 전략으로, 관련 그룹을 ‘장(場)’, 즉 플랫폼에 모아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중요하다.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더욱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붕괴시킬 위험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과 MP3 플레이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플랫폼 경쟁력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돌이켜 보면 MP3 플레이어는 국내 새한정보통신이 최초로 만들었지만, 국내 하드웨어에만 집착하고 있다가 애플의 아이튠스에 시장을 잠식당했다.

또한 1999년에 새롬기술이 개발한 다이얼패드는 인터넷 전화로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나, 인터넷 기반이 부족한 데다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실패했다. 이 밖에도 아이러브스쿨(Iloveschool), 싸이월드 등 소셜 네트워크는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페이스북, 트위터에 시장을 내주고 말았다. 최근에는 IPTV, 와이브로 등 제품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글로벌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실패와 어려움들은 바로 국내 기업의 플랫폼에 대한 이해 부족과 플랫폼 전략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미 기존 질서 내 경쟁에선 세계 일류에 접근해 있는 국내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경쟁 질서를 만드는 플랫폼 전략에 눈을 돌릴 때다. 플랫폼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일체가 된 플랫폼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 아이팟은 음악 재생 단말기지만 다양한 음악을 구입할 수 있는 아이튠스라는 플랫폼과 연계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다. 이전 하나의 물건(하드웨어)이 지닌 가치보다는 플랫폼의 일부로 지닌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 이로 인해 구글이나 애플

과 같은 외국 기업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시대에 플랫폼 전략적 사고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때문이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빨라졌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제휴를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고객의 요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회사의 능력만으로 그 다양한 요구에 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IT 발전으로 네트워크 효과, 즉 입소문의 신속하면서도 광범위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플랫폼이 진화하게 되었다. 넷째,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화, 즉 디지털 기술이나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화, 방송, 통신, 출판 등 지금까지는 ‘출구’라는 형태로 분류되어 왔던 산업이 일단 무너진 후 전혀 새로운 미디어로 통합되는 ‘미디어 수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애플은 컴퓨터 회사라기보다는 음악 파일 공급업자, 음악 재생 휴대 단말기 제조사라는 분류에 속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마존이나 구글의 전자책 단말기 발매로 더욱 가속될 것이다. 당신의 회사뿐 아니라 산업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필요한 것이 바로 플랫폼 전략이다.

안드레이 학주와 히라노 아쓰시 같은 저서 『플랫폼 전략』에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① 사업 도메인을 결정한다. 사회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큰 흐름을 파악해, 어떤 업계, 어떤 업종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 ② 타깃이 되는 그룹을 결정한다.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점을 특징으로 내세울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 ③ 플랫폼 내 그룹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플랫폼이 존재하기 전보다 더 활발하게 그룹 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입소문을 연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야말로 성공하는 플랫폼의 특징이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선순환이 시작되면서 자가증식을 하듯 플랫폼이 확대된다.
- ④ 킬러 콘텐츠, 번들링 서비스를 준비한다. 성공한 플랫폼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킬러 콘텐츠라 부르는 인기 콘텐츠나 서비스다. 그것은 ‘그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 ⑤ 가격 전략,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 어떤 그룹으로부터 어떻게 수익을 얻을 것인가, 혹은 반대로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어떤 그룹의 참가가 플랫폼에 유리한가를 파악해 천천히 가격 변동을 실시하면서 변화를 지속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MS가 OS를 개발할 때, 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그룹에 금전을 비롯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실시했고 3만 명 이상의 기술자를 회원으로 삼았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한 비용은 전부 라이선스비에 추가해 컴퓨터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회수하면 된다.
- ⑥ 가격 외 매력을 그룹에 제공한다. 플랫폼에 대한 그룹의 애착도를 높이는 데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의 매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전략은 가격 경쟁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 번 확립하면 강한 매력을 지니게 된다. 미국 최대의 옥션 사이트 이베이가 최초로 도입했고 지금까지 많은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는 판매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다. 한 번 높은 평가를 얻으면 좀처럼 다른 옥션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는다.
- ⑦ 플랫폼의 규칙을 제정하고 관리한다.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일단 한 번 좋지 않은 이미지가 박혀 버리면 그 그룹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이 경우 네트워크 효과는 실패의 소용돌이를 점차 증폭한다.
- ⑧ 독점금지법 등 정부의 규제와 지도, 특허권 침해 등에 주의한다. 플랫폼 전략은 하나의 기업이라는 기존 단위에서 벗어나 탈기업 활동을 통해 에코 시스템(생태계)을 구축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법 제도나 정부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 ⑨ 항상 ‘진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진화라고 해서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퇴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참가하는 그룹의 본원적 욕구는 무엇인가라는 원점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

는가, 이 서비스나 제품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늘 구체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삼성은 휴대폰 플랫폼전략으로 휴대폰과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간 일관성이 크게 향상됐다..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DK)나 UI 가이드라인을 풍부하게 제공해 UI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과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나가는 것이 삼성의 플랫폼 전략의 핵심이다.

삼성전자가 UX를 플랫폼 관점에서 추진한 것은 앱스토어가 활성화하면서 외부 업체나 개발자들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들과 자사 제품 간 UX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외부 애플리케이션이 UX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하는 만큼 휴대폰과 어울리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은 전체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플도 SDK를 통해 아이폰과 외부 애플리케이션들 간 색깔을 맞추는 데 적지 않은 비중을 할애한다.

얼마나 뛰어난 SDK를 제공하느냐가 휴대폰 업체들이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휴대폰 시장은 이제 사업자 혼자만의 게임이 아니라 통신사업자, 포털 업체, 개발자, SW 업체 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 보완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들이 휴대폰 UI와 일치하려면 플랫폼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 2. 스마트 TV의 플랫폼

2012년 스마트 TV가 본격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스마트 TV가 실패한 TV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스마트 생태계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냐를 놓고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여러 예측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스마트 환경에서는 더 이상 단일 가전·기기만의 경쟁이 아닌 바로 스마트 기기 기반의 플랫폼 경쟁이라는 것이다. 즉, 스마트

TV가 하나의 기기나 가전제품이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 생태계가 주도하는 변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스마트 TV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스마트 플랫폼 경쟁을 촉발할 것이기에 것처럼 주목받는 것이다.

경쟁은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에 의해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그 혁신의 길은 이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던 구글의 손을 벗어나 다양한 업계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스마트 융합시대에 새로운 스마트 플랫폼 경쟁 시대의 여명을 보고 있는 것이다. 향후의 새로운 플랫폼 경쟁은 기존 PC 기반 생태계의 확장이라고 볼 수 없는, 새로운 업체들이 주도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때론 새로운 사업자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 신생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하는 역동성이 있다. 스마트 융합 시대에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미디어 생산과 이용, 정책과 산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응하지 않는 한 관련 업계와 정부가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스마트 TV 논의에서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경우 거의 완벽하게 시장 주도권을 갖고 있던 이동통신 업계가 애플의 아이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의해 2년 만에 완전히 그 구도가 달라져 버렸고, 이러한 변화의 근본 원인이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 경쟁력에서 기인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플랫폼 주도권을 가진 회사들에 의한 세상의 변화가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다른 업계 특히 스마트 TV로 변화의 파도를 몰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플랫폼이란 개념이 과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자가 이해하는 기계적 플랫폼의 의미를 넘어 전체 생태계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망이 점차 상용화(commodization)하며, 망-애플리케이션의 분리(decoupling) 현상이 가속화되고(정책적으로도 망 중립성이 시행되고), 산업적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부문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망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산업적 경쟁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플랫폼의 역할이다. 스마트 TV에 이 플랫폼 전략을 적용하면, 스마트 TV를 통해 사용자와 접점을 형성해 그 접점들이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서 작용해 또 다른 사용자 집단들과 연결해 커다란 사회적 관계망을 이루어 내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스마트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바뀌기 때문에 특정 인터페이스나 기능 자체는 상황

(context)이나 다른 더 나은 기술에 의해 언제나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가변적 기술과 상황적 인터페이스를 포용하고 담아낼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의 구축이 성공의 핵심 요인이고 미래 스마트 인터랙션의 방향이다.

스마트 시대의 특징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기와 기기가 연결되는 환경이고, IT 생태계의 중심이 기존 하드웨어에서 콘텐츠와 플랫폼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생태계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 부상했으며, 앞으로 스마트 생태계는 콘텐츠와 결합된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경쟁력에 비해 콘텐츠와 플랫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미약, 혁신에 대한 유인 부족, 플랫폼의 속성과 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 창의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스템 부재 등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자를 비롯한 시장 플레이어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더불어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기를 통한 플랫폼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국내 스마트 TV가 여러 기능들이 뭉뚱그려진 하나의 하드웨어 박스가 아닌 스마트한 사회 관계망들이 생태계 안에 유기적으로 연관된 소프트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하는 것이다.

## Ⅵ.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

지난 2018년 7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고용률과 실업률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들어 청년일자리 정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만만치 않은 모양새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증가세가유지되었으나, 교육서비스업, 제조업의 감소세 지속 등으로인해전년동월 대비 7만 2천명 증가에 그치고, 실업자는 40대를 제외하고 20대를 포함하여 전연령 층에서 고르게증가하여 12만 6천명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한국예술저널 우득제 편집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주로 지역 내 공공부문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 한정된다.일자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일시적인 일자리는 곧 바닥을 드러내고 똑 같은 현상을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요즈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를 일자리와 연계하여 풀어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실에서의 공유 경제는 개인 간 상호 작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경제 잉여로 보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희 재고와 유희 생산력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유희 자금과 유희 물품 등을 공유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PwC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2017년에 2016년 대비 2배 성장, 중국은 2025년에 GDP의 20%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지난 2013년 150억 달러(약 16조 3830억 원)에서 2025년에는 3350억 달러(365 887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유경제는 1984년, 하버드대학교의 마틴 와이츠먼 교수가 '공유경제 : 불황을 정복하다'라는 논문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985년 즈음에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저항할 대책으로 공유경제를 내세우며, '공유 경제'라는 책을 출간하면서부터 쓰기 시작했으며 2008년, 미국에 금융위기가 닥치자 소비자들은 공유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공유를 통해 과소비를 절제하고, 과잉생산과 과잉소비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도 해결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제 공유경제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공유 경제를 경제발전의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했으며, 미국은 선도적인 위치에서 공유 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 보호한다는 정책이고, 중국은 공유 경제를 국가 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일본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유경제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및 시사점 발표자료에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8년 3월말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체계나 관련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현실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차제에 제주를 공유경제 특구로 추진해야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뛰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뒷짐 쥐고 있는 현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는 주로 지역 내 공공부문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 한정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보다 폭넓은 지원과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추진해 나가야한다.[4].

## VII. 결 론

제주지역에 산재된 釜木올레와 드러누워 있는 세계 최대 피라미드인 墓의 神門올레를 조사하고 제주인의 풍속 Protocol을 4차산업혁명인 공유경제와 접목시키는 Link를구성했다. 정당과 권당의 기본철학은 노동공유경제인 수눌음(Labor Cooperation)에있다. 제주에서 발담을 쌓을때는 큰 권 돌을 밑돌로 놓고 그 위에 한 돌, 두 돌을 붙여나간다. 돌과 돌 사이에 서로 서로 수눌어저(Stone Cooperation)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없다. 권담은 구어체상 권당이된다. 인터넷 국어사전에 의하면, 권당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혈족과 친족을

의미하는 단어로 동사‘괴다’에서 온말로 서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밑을 받치다 (Support, ProperSustain)로 끈돌이 밑을 받치면 끈담이다.

밭담을 쌓을 때, 밑돌 빼서 잇돌 괴는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 제주인의 삶에 기본철학인 수놓음에 미학이 오늘날 4-6차산업 공유경제의 뿌리다. 제주전통 문화의공유경제가 1:1의 User 간에 Give and Take 물물공유경제라면, 요즘디지털 기반공유경제에서는 반듯이 매개하는 플랫폼기업들이 있어야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그역할을한다.

그 한예가 카카오의 카풀차량공유인데, IoT가 매개체 플랫폼이다.

### **제주적인 공유 플랫폼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 각국을 여행을 자주하는편인데,다니다 보면 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본다. 유럽의 각 도시 중요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광장에는 그 도시만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 이렇듯 선진국들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이유는 광장을 통해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 런던, 로마, 뮌헨, 비엔나, 프라하, 부다페스트 등의 도시를 가보면 도심 광장에서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진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중심인 슈테판 성당 앞 광장에 가면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다. 음악, 공연, 놀이 등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장관이며 재미있다. 그곳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한결 흥을 돋운다. 뮌헨의 맥주 축제도 그예이다.

### **제주의 관덕정광장에서 흥을 돋을 수는 없을까?.**

유럽의 문화는 광장 문화라고 할 만큼 유명한 광장들이 많다. 그 광장들이 사람들 간 점점 역할을 하며 문화의 용광로 기능을 하며 찬란한 유럽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켰다.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물건을 파는 시장이 열리며 중세 시대부터 내려오는 각종 놀이가 벌어지고, 즉석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길거리 공연이 벌어진다. 마을의 각종 축제와 공식 행사도 열리며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까지 참여해 유대와 교류가 활발하다. 유럽의 정치와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카페 문화의 토론에서 발

전했듯이, 문화와 예술은 이 개방적이고 인간 중심의 광장 문화에서 발전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광장의 문화가 없고 굳이 있다고 한다면 광화문 정도를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과 같이 탁 트인 열린 광장은 아닌 것 같다.

IT 생태계에서 플랫폼이란 바로 이 광장에 비유할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많은 사용자가 거쳐 가며 사용자들의 취사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좋은 콘텐츠와 서비스가 선택되고 진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곳이 바로 플랫폼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서비스가 거래되고 사용되면 재생산되는 곳, 다양한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가 만나는 접점이 플랫폼이다. 건강한 생태계는 이 플랫폼이 잘 형성되어야 하며, 개방성을 근간으로 하는 스마트 생태계에서는 더욱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다.

스마트 생태계에서 플랫폼은 소수의 특정 사업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생태계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또한 그 플랫폼에서는 정부의 간섭과 조정이 과도하면 시장의 순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플랫폼에서는 사용자들의 선택적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 광장에 누구나 가서 공연하고 연주하고 즐길 수 있는 것처럼 플랫폼에서도 좋은 아이디어와 콘텐츠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아야 한다. 광장처럼 플랫폼에서도 비싼 권리세가 없어야 한다.

일자리창출과 신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옛 문화를 돌아보고 여기에 시대에맞는 아이디어를 첨가해 나갈 때,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제주의 공유경제특구를 제안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공유경제의 부분셋(Subset)이다. 즉 발담은 공유경제의 밑돌 틀이고 그위에 한 돌, 두 돌 붙여나가는 프레임이 블록체인이다.



## [참고 문헌]

- 이문호(2015), “제주정낭 소고”, 제주개발연구원. Vol.19.
- Moon Ho Le(2012), “Jeu Jong Nang Channel Code I”, KIEE, Vol.49, No.12.
- Moon Ho Lee(2016)l, “Jeu Jong Nang Channel Code IV”, JIIBC, Vol.16 No.3,  
DOI: <https://doi.org/10.7236/JIIBC.2016.16.3.203>.
- 나누세(2018), “세계공유시장규모” 인터넷, 2018.7.20
- 김훈범( 2016) 제주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권당’. TV방송.
- 김해숙( 199), 『권당과 친족』, 제주대학교 출판사.
- 이문호( 2017), ‘권당’, 제주신문
- 이문호( 2018) 수놓음과 고적에서 찾는 블록체인의 뿌리, 제주의소리
- 이상근( 2018), 제주 권당문화를 느끼다, 국민일보
- 현용준( 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 K. Schwab(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low Press,
- 이문호(2017), 제주의 門,,서귀포문화원 보고서
- 이문호(2017), “제주권담-권당의 4차산업혁명의 사회 물리적 초연결층”.2017년도 제주발  
담 아카데미,,JDI 제주발전연구원,,돌빛나예술학교.
- 신동희,2014, “인간과컴퓨터의어울림”, 커뮤니케이션북스